

“This is not a drill: 핵미사일 오경보 속에 숨은 진실”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bird1226@gmail.com

요즘 들어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경주, 포항지역의 돌연한 지진사태, 잦은 화재와 인명피해, 미투운동(Me-too Movement)으로 드러나는 역겨운 성추문, 게다가 북핵사태까지 곱자면 한이 없을 지경이다. 최근 북핵사태는 화해무드로 변화하고 있긴하지만 늘 어디로 튈지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외신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일본이나 하와이 아니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보다 더 태평하게 지낸다는 보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고요해 보이는 한국사회를 한 꺼풀만 벗기면 온갖 논리가 실타래처럼 뒤엉켜서 태극기 부대나, 한반도기 부대나 길거리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한국사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다. 한편으로는 “핵전쟁이라니,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라는 자기최면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핵 한방이면 여차피 다 죽을 건데 그냥 살다가 죽자는 자조 섞인 체념론,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김정은을 자극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눈치를 봐야 한다는 “백두혈통 달래기론”이 기세를 올린다. 물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논리,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과 주변 지형지물 이용법 등을 철저히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유비무환론이 있다. 한국사회는 외견상 태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격동의 현장이다.

한국사회와 달리 바다 건너 있는 국가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핵전쟁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한창인 일본이나 미국, 특히 하와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현실상황에 직면한 각 주체의 생각과 논리가 왜 이렇게 다른 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과 행동은 또 왜 그렇게 판이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19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이 그의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1835)”에서 묘사한 민주사회 시민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토크빌은 26세 되던 1831년 5월, 뉴욕에 도착해 미국 전역을 9개월간 여행하면서 미국의 활기찬 시장경제, 독특한 정치제도,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태도 등 미국 사회의 모든 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다. 그는 왕이나 군주가 다스리지 않는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토크빌은 왕 대신 평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라 부르며 그를 중심으로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모든 면에서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놀라울 따름이다. 무언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영국은 귀족들이 나서고, 프랑스는 왕과 그 신하들이 나서지만, 미국에서는 왕이나 귀족들 대신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 이들은 공동체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의 사정이나 성향, 심지어는 나이를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함께 해결하는 버릇을 가졌다. 정치적인 결사체는 그 모든 단체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모임을 가지고 단체를 만든다.”

토크빌은 이와 같은 특성이 우연의 결과일까, 아니면 미국시민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일까 라는 수수께끼에 천착했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귀족이나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힘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말만 시끄럽지 되는 일이 없다. 그 대신에 힘센 귀족 서너 명만 모여도 웬만한 일은 쉽게 해낸다. 그들은 전쟁도 치러낼 힘과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연약하다. 따라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일을 그친다면 시민사회의 존망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지 한참 지난 현재, 토크빌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도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세뇌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민주시민이 가지는 여러 원리와 특징 가운데 시민들 개개인의 자발적 행동과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오늘날의 한국시민이나 미국시민은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양 쪽의 시민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히는 일은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 위기의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긴요한 일이다.

하와이는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미국의 50번 째 주이다. 그리고 태평양을 비롯하여 인도양 너머까지 관할하는 미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한 섬이다. 그로 인해 북한 김정은은 만약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하와이를 가장 먼저 타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하와이 주정부나 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 전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매뉴얼을 신문, 방송, 그리고 하와이 민방위(Civil Defense Agency) 본부를 통한 핸드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 공격경보 시스템(Attack-warning system)을 운영하고 매달 일회 사이렌을 울려 하와이 전 주민에게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CNN은 이에 대하여 주산업이 관광인 하와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통하여 하와이가 더욱 안전한 곳을 관광객들이 인지한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민방위 훈련이 하와이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후 매달 1일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각급 기관과 학교, 빌딩은 자체적으로 대피요령을 학습시키고, 대피훈련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13일, 토요일 아침 8시7분, 북한의 핵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고 이것은 실제상황임을 알리는 하와이 민방공 본부의 요란한 경보 사이렌, 전 주민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때문에 하와이의 온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다행히 약 20분 후 이 경보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오경보임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나타난 하와이 주민의 움직임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훈련이었다면 오경보이긴 했지만 가상의 실제상황을 경험한 주민들은 토크빌이 목격한 그대로 서로 모이고 경험을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구책에 나서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각급 학교와 대학은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고 보안기관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빌딩과 대형 몰은 비상시 대피요령과 지식을 직원과 손님에게 홍보했다. 예를 들어 하와이 대학교는 총장명의로 전학생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주정부를 대신하여 오경보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실제 비상상황에서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자신부터 전혀 몰랐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상시 요령을 메일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했다. 또 하와이에서 가장 저명한 연구기관인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 EWC)는 우선 학생들과 교수,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실제 믿었던 그 20분동안 심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는지 경험담을 나눴고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 그들은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집중 토론했다. 이와 비슷한 사후 대응은 하와이의 특정 지역을 막론하고 전체 주민과 행정, 교육, 문화기관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행해졌다. 한동안 하와이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시민들 사이의 모임은 활발했다. 그리고 오경보 후 두 달이 지난 3월 중순경, 호놀룰루 시내 교회에서 개최된 시민토론회는 이러한 자발적 모임과 토론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했는지 잘 보여준다. 우선 이 모임을 알리는 이멜을 살펴보자.

발신: 하와이 대학교

학부의 각 교수님들은 담당학생들,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발생가능한 북한과의 전쟁의 위험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모두 참석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3월 10일 저녁 6시에서 7시 30분까지 크로스로드 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론회는 하와이 여러 신문방송에 “왜 우리를 위한 대피계획(evacuation plan)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이 포럼의 발제자인 하와이 대학교 자이러스(Jairus Grove)교수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친다면 그 대가가 엄청 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와이가 가장 손쉬운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이나 핵공격 대피소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주민에게 알리고 환기 시켰다.

요약하자면 토크빌이 목격했던 미국 민주주의 초기의 자발적 모임과 자결주의적 행태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도 아직 여전히 계승 발전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하와이가 핵공격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만 미국시민들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대책과는 별도로 자발적 모임을 갖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장 가깝고 효율적인 대피소와 대피방법은 무엇인지 찾아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비상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군인과 공무원, 교수, 관련 전문가를 불러내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다. 어느 언론인이 풍자했듯이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핵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전혀 근거 없는 낙관적 자기 최면론은 미국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어차피 다 죽을 바에야 편하게 살다가 죽자는 자조 섞인 체념론, 전쟁만 피할 수 있다면 어떤 짓도 다할 수 있다는 “백두혈통 달래기론”도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 그들에겐 불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주변 이웃의 안전을 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철저한 자결주의적 민주시민의식만 있을 뿐이다. 개인으로서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국민과 모든 문제를 국가와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소리지르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국민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격차가 있다.